참여 요청

■ 발　　신 : 서울학생인권조례정착화를위한청소년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학생인권조례전국교사연석회의
■ 수　　신 : 교육·인권·청소년 및 제 사회단체
■ 일　　시 : 2012년 7월 5일(목)
■ 제　　목 :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참여 요청
■ 문　　의 : 배경내(010-6214-3550)

폭력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입법과제 간담회 참여 제안

19대 국회의 출발, 2012년 대선을 앞둔 현재, 인권과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법적 현실로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학생인권 보장'과 '반인권·반교육적 학교폭력대책 시정'이라는 양대 입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하셔서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의 학교를 넘어 인권의 학교로!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입법과제 간담회

○ 때: 2012년 7월 25일(수) 오후 2시-6시
○ 곳: 전교조본부 대회의실(영등포시장역 3번출구)
○ 주요 내용
1. 조례를 넘어 법률로 : 학생인권보장 입법 방향
- 학생인권법, 특별법인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인가
- 법안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
2. 징벌을 넘어 회복으로 : 학교폭력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시정 과제
- 학교폭력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 '학생간 폭력'만을 다루는 학교폭력법, 이대로 괜찮은가
3. 학생인권법과 학교폭력 대책은 왜 함께 가야 하는가
4.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입법 전략과 운동본부 구성 방안

■ 추진 배경

○ 뿌리 내리지 못한 학생인권

통제와 처벌 위주의 학생생활규정,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학습,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

등으로 여전히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잦습니다. 학교현장에 인권친화적 구조와 문화가 영글지 못하다 보니 교사와 학생이 대리전을 치르는 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경기,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악, 대법원 제소 등을 통한 교과부의 공격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운동을 성사시킨 경남에서도 교육청과 의회의 장벽에 가로막혀 조례 제정이 무산되는 등 학생인권조례를 지역별로 제정하기 위한 흐름이 갖가지 암초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잠시 빛이 드나 싶었다가 다시금 암흑기로 접어들고 있는 학생인권 현실을 법률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입법 추진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설령 조례가 안정적으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지역 조례가 가진 법적 한계로 인해 국가 차원의 학생인권 보장 입법과 정책 전환이 별도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 학교폭력 정부대책의 폭력성

2012년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무시해온 '폭력의 학교'를 자양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폭력 정부대책은 문제의 뿌리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을 겁박하고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고 처벌·치료 대상으로 분류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악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엄격성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그 징계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까지 장기 기록되어 수많은 인권침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반인권·반교육적 학교폭력 정부대책을 바로잡고, 학교현장에 인권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 향후 활동

이번 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입법 방향을 나침반 삼아, **8월 중순경 입법 방향에 동의하는 단체들을 모아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입법추진연대'(가)를 출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연대체는 학생인권법 제정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핵심 과제로 움직이는 단위가 될 것입니다.

이 연대체는 ▸실태 및 의식 조사 ▸법률안 마련 ▸대시민 캠페인 ▸시민과 함께하는 입법운동 ▸대국회, 대정부 압력 ▸2012 대선 대응 ▸교육개혁입법운동본부와의 연대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간담회와 이후 자리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음 합니다.

■ 간담회에 참여하실 단체는...

이번 간담회는 연대체 참여를 전제로 한 간담회는 아닙니다. 이번 간담회 논의를 지켜보시고 연대체 참여 여부를 추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하실 단체는 오는 7월 16일(월)까지 참여 인원과 연락 담당자를 정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내용과 미리 검토할 자료 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락주실 곳 : 배경내(010-6214-3550) 또는 dlhredu@gmail.com

장맛비에 모두 피해 없으시고, 말라붙은 대지가 촉촉해지기만을 바랍니다.